

1980년대 재일조선인 취업 잡지 연구*

- 『코리아취직정보』와 원수일 『다리(橋)』를 중심으로 -

임상민**
y3k76@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1980년대의 '본명'과 취업 담론 |
| 2. 1980년대 재일조선인 담론과 생활 정보지 | 5. 나오며 |
| 3. 소설 『다리』와 경계의 월경 (불)가능성 | |

주제어: 원수일(Won, su-il), 마이너리티 미디어(Minority media), 취업잡지(Job magazine), 본명운동(Real name movement), 주체 구축(Building main agents), 가공성(Machinability)

1.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일본사회에 동화되기보다는 차이를 만들어가며 공존의 방식을 찾아온 재일조선인 사회와 문화의 변용 과정을 전후 일본의 관련 매체를 통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0년대 일본에서 발행된 재일조선인 취업 정보지 『코리아취직정보』의 서지적 정보 및 역할을 살펴보고, 동 정보지에 연재된 원수일의 『다리』의 동시대성을 탐색한다.

현재, 재일조선인 사회는 탈식민과 분단의 재일 70년을 지나면서 한일 관계사의 핵으로 남아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 재일조선인 사회가 갖는 의미는 강력하며 현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낀 중간자적 위치에서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서 부의 이미지로 읽어온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사회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화시키며 복합적인 의미망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 분단의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위치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의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1980년 전후는 재일조선인 2세,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2003190001)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학과 조교수

3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재일조선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일본인의 두 논문이 단초가 되어 ‘제3의 길’ 논쟁이 일어났다. 먼저, 논쟁의 발단은 당시 법무성 관료였던 사카나가 히데노리(坂中英徳, 1945년 조선 청주 출생)의 입국관리국 응모논문에 당선된 「금후 출입국 관리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1975년도 우수논문 선정)라는 논문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재일조선인의 삶의 방식을 1) 귀국지향, 2) 귀화지향, 3) 한국과 조선 국적인 채 일본에 정주 지향으로 분류하고, 국적을 유지한 채 정주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따라서 재일조선인이 귀화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이이누마 지로(飯沼二郎)는 귀국지향은 조국의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귀화지향은 동화주의로 직결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카나가 히데노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 정주하는 것이 바르게 평가되어야 할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기본적으로는 ‘귀국사상’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국과 일체화되어 있는 재일조선인 1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동시대적 상황 속에서 발행된 본명과 모국어 사용을 통한 취업 성공을 목표로 하는 잡지 『코리아취직정보』와 그곳에 연재된 원수일의 『다리』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3세의 본명 취업과 통명 취업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1980년대 재일조선인 담론과 생활 정보지

1980년대는 1959년부터 시작된 북한으로의 집단 이주였던 북한송환사업¹⁾이 1984년에 완전히 끝이 나면서 재일조선인 잡지는 재일 3세를 주축으로 뉴커머(new comer) 층이 일본사회에 등장함으로써 의식주나 취직, 결혼 등의 생활정보 또는 아이덴티티나 모국어 문화의 계승을

1) 북한송환사업(일본에서는 ‘북조선귀국사업’, 북한 및 조총련에서는 ‘귀국운동’ 또는 ‘귀환운동’이라고 부름)이란 전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이 1959년 12월 14일부터 수차례의 중단과 반복을 거치면서 1984년까지 9만 3340명이 일본을 떠나 북한으로 향한 전후 최대의 집단이주이다(일본인 동반 가족은 6731명, 중국인 가족은 6명). 귀국자 중에는 약 1800명의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2년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북한에서 귀국한 일본인 아내의 궁핍한 생활을 보도하면서 동 기사를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송환사업을 재검토하는 많은 서적이 출판되었다. 이와 같은 이른바 송환사업 검증 현상은 당시 가장 정치적 문제로 화두가 되었던 납치문제·핵문제를 둘러싼 일본인의 북한 및 조총련에 대한 분노와도 연동되면서, 당시 송환사업을 지지했던 사회당과 공산당, 그리고 신문, 잡지, 지식인의 비난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주요 테마로 하는 미디어가 나오는 시기이다. 특히, 이와 같은 세대교체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서의 정주 지향이 더욱 뚜렷해졌고, 동시에 재일조선인의 미디어는 급속히 정치적인 특징을 벗어나 문화적인 색채를 띠며 변모해갔다. 달리 말하자면, 1980년대는 일본인과의 공존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발행된 재일조선인 잡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1980년대 재일조선인 발행 잡지 목록(28종)

季刊在日同胞(1980, 한국사료연구소)	架橋(1980, 재일조선인작가를 읽는 모임)
韓青通信(1981, 재일한국청년동맹)	シアレヒム—粒の力(1981, 씨알의힘사)
書堂(1981, 조선아시아관계도서센터)	ナグネ(1983, 동인 나그네)
코리아研究(1984, 코리아연구소)	ヒューマンレポート(1984, 휴먼레포트사)
ケナリ(1985, 일조우호촉진 교토부인회의)	季刊ソウル—東京(1985, 서울-도쿄 편집위원회)
코리아就職情報(1986, 코리아페밀리서클)	ウリイルム(1986, 민족이름을 되찾는 모임)
民主女性(1986, 재일한국민주여성회)	季刊코리아研究(1986, 코리아연구소)
同胞と社会科学(1986, 재일본조선사회과학협회)	青鶴(1987, 재일한국·조선인문제학습센터)
ハンギョレ(1987, 장의군씨를구출하는모임)	季刊民濤(1987, 민도사)
ウリ生活(1987, 재일동포의생활을생각하는모임)	MILE(1988, 판·퍼블리시티)
RAIK通信(1988,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	日本植民地研究(1988, 용계서사)
濟州島(1989, 신간사)	季刊靑丘(1989, 청구문화사)
月刊Asia(1989, 아시아비즈니스사)	ナビヤ(1989, (주)싱크넷)
セヌリ(1989, 새누리문화정보센터)	アンニョン! (1989,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

예를 들면, 1980년대에 발간된 재일조선인의 생활정보와 관련 잡지 미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휴먼레포트: 우리들이 갈길』은 1984년 1월에 나고야를 거점으로 발행된 계간 잡지이며, 재일 사회의 세대교체라고 하는 과도기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발행인은 창간호에서부터 서해석이 맡고 있고, 나고야를 거점으로 발행되고 있다. 계간잡지로 출발하였으나 7호(1986.11)부터 연1회 발행으로 바뀌고 있고, 18호(1998.05) 발행 이후 휴간되었다가, 2010년 9월에 ‘2010년 특별호’를 간행한 이후 계속 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창간호부터 2010년 특별호까지 잡지의 판매가격은 줄곧 1000엔을 유지하고 있다.

잡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적법 개정과 법적지위문제, 그리고 재일 3세의 교육문제 및 취업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0년 특별호에서는 12년간 휴간되

있던 잡지를 복간하면서 본 잡지의 역할에 대해서, “세상의 본질과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확인하면서, 재일이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발전시켜갈 커뮤니케이션지, 말하자면 ‘재일의 생활 편집집’ 역할”²⁾을 다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생활』은 1987년 11월부터 1995년 8월까지(12호) 도쿄의 「재일동포의 생활을 생각하는 모임」에서 발행한 생활정보잡지이며, 편집은 『우리생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 잡지는 최초 연 2회 또는 3회를 목표로 발간되었지만, 1990년 11월에 발간된 7호까지는 연 2회, 그리고 1991년 5월에 발간된 8호부터는 연 1회로 횟수가 축소되어 발행되었다. 또한, 동시대에 발행되고 있는 『민도』『계간 청구』『호르몬문화』 등의 잡지가 짧은 기간에 많은 호수를 발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상을 담당하는 잡지는 사상을 담당하고, 문예를 담당하는 잡지라면 문예를 담당하며, 생활을 깊어져야 하는 잡지이면 생활을 담당하는 것, 항상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10호)라고 말하고 있다.

잡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면은 좌담회, 창작, 역사탐방, 영화비평, 칼럼, 동포교포, 독자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호 동시대에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를 특집으로 엮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문제를 생각하다」(창간호), 「재일동포 문화의 창조를 목표로」(2호), 「귀화동포는 말한다」(5호), 「1995년 해방 50주년의 여름」(12호) 등, 재일동포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현실적인 생활의 고민과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며 해결해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재일동포의 생활종합지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본 생활정보잡지의 기사 구성은 『우리생활』은 문예지도 아니며 사상지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작이나 논문을 배제하는 것 역시 아니다. 다만, 모임의 성격상, 지금의 이국땅에서 생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극히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생활 정보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³⁾(창간호, 편집후기)라고 말하고 있

2) 徐海錫(2010.9)「編集後記」『ヒューマンレポート』2010特別号. 편집발행인은 창간호에서부터 서해석이 맡고 있고, 계간잡지로 출발하였으나 7호(1986.11)부터 연1회 발행으로 바뀌고 있고, 18호(1998.05) 발행 이후 휴간되었다가, 2010년 9월에 ‘2010년 특별호’를 간행한 이후 계속 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창간호부터 2010년 특별호까지 잡지의 판매가격은 줄곧 1000엔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휴먼레포트』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자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3) 編集部(1987.11)「編集後記」『ウリ生活』창간호, p.186.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래의 남북으로 분리된 재일 조직의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사람들과의 접촉의 장도 그다지 가지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며, 더욱이 그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생활」이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의견과 정보 교환의 마당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5호)라고 말하고 있듯이, 민단과 조총련의 두 조직 사이에서 분열된 주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언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애당초 민족을 사용언어(만)로 파악하려고 하면 재일은 이미 훨씬 이전에 소멸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적만으로도 정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와 같이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한 존재, 그것이 재일인 것이다」(10호)라고 재일조선인을 재규정하고 있듯이, 민단과 조총련이라는 고정적이고 경직된 구조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언어화해서,

이, 특정 장르의 기사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미래』⁴⁾는 1988년 6월부터 1996년 12월(87호)까지 오사카에서 발행된 월간 조선정보잡지이며(Korean Information Magazine, 창간호부터 16호까지는 격월간, 정가 400엔, 55쪽 내외), 발행은 KYCC(이후 주식회사 팬 퍼블리시티로 변경), 편집장은 논픽션 작가로 유명한 고찬유이다. 주식회사 팬 퍼블리시티(사장은 오호일)는 본 잡지의 발간은 물론, 광고 및 디자인, 기획 설계, 인재 파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1991년 6월에 발간된 21호에는 동 회사의 도쿄 및 규슈 영업소 개소 소식을 알리면서, 본 잡지를 포함한 다양한 출판물의 판로를 전국적으로 확보하고 구독자 역시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잡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1991년 12월에 발간된 27호의 투고 정보 모집 광고에서 「MILE(미래)는 문화·생활·취직·결혼 등 조선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잡지입니다. 뉴스, 문학작품, 그림, 각종 정보, 설문조사 등, 편집부로 많이들 보내 주세요요」라고 원고를 모집하고 있듯이, 재일조선인 사회와 문화는 물론이고 조국정세 및 세계정세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1994년 1월에 발간된 50호 기념 특집호에는 「재외 조선민족을 생각하다」라는 기획 기사가 실려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잡지는 미국의 코리아타운(1992년 1월-3월 연재, 이후 1993년 10월 49호에는 동 연재의 출판기념 파티를 소개), 중국의 조선족, 그리고 사할린의 한인 등, 일본 국내의 재일조선인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재외 한인의 생활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본 잡지는 재일조선인 집필자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활약하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예를 들면, 영화 평론가 사토 다다오, 만화가 치바 데츠야, 여배우 구로야나기 데츠코, 영화 감독 야마다 요지 등, 각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인의 작업 현장 및 인생철학을 소개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본 잡지는 매호 「PAN How to 취직」 및 「PAN How to Work」 등의 직업

재일조선인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공감의 장소와 담론의 장으로 만들어가고자 했다.

- 4) 잡지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1996년 중간호의 휴간 안내 기사에는 「『미래』는 1988년에 창간된 이래, 조선 관계의 문화생활 정보잡지로서 월간으로 발행해 왔습니다만,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휴간에 들어가며, 내년 봄부터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 발신 기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87호, p.56)라고 안내하고 있듯이, 동 잡지는 재일조선인의 세대교체에 따른 사회적 의식 변화와 급속도로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인터넷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개막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하기 위해 잡지를 중간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히고 있다(처음에는 일본어 발신, 이후 조선어, 영어로 확대 발신 계획). 다만,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해서는 편집부로부터 정기 구독자들에게는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구독료를 환불해 준다고 전하고 있고, 또한 중간호 직전에 발간된 86호에는 「연간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본 잡지 1권 400엔×12개월=4800엔+배송료의 가격을, 배송료·세금 포함해서 4000엔의 할인 가격으로 직접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1996년 11월, 86호, p.56)라는 안내를 보면, 잡지의 중간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발신의 전환은 오랜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소개란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동포기업 및 취업 가능한 일본기업, 그리고 사회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인드와 자세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시키고 있다.

『새누리』⁵⁾는 ‘만남을 원하는 인간정보지’라는 부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89년 11월에 창간되어 2005년 81호까지 발간된 재일 사회의 만남과 결혼에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문화정보지이다. 창간 당시에는 계간이었으나, 2000년부터 월간으로 간행하였다. 도쿄의 새누리문화정보센터출판국에서 발행하였고, 가격은 500엔이다. 일본에서의 정주 지향이 더욱 뚜렷해진 시기에 발행된 『새누리』는 결혼이나 문화 정보지로서 일상의 내용이나 한국의 관광, 또는 생활정보를 담았다. 특히 한국인의 결혼문화에 대하여 소개한 내용이 많은데, 특집으로 혼수(1992.12), 부케(1993.1), 육아용품이나 한국인의 생활용품에 관한 내용이 많다. 이 외에도 한국의 식문화, 민속촌 가이드, 해외 코리안 소개, 원코리아 페스티벌,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재일코리안의 삶, 재일동포의 생활과 교육 문화에 관한 좌담회(1996.9)나 재일 동포 역사 포럼(1996.10), 김지하 시인(1999.8), 한국인 강제이주를 테마로 하는 국제심포지움(1999.8) 등을 특집으로 기획하고 있고, 여성 에세이집이나 시 작품, 음악, 가수(김연자 외)를 소개하는 코너와 같이 교양과 대중적인 오락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안녕!』⁶⁾은 재일한국청년회의 회보지로 1989년 12월에 창간되어 연2회 발행되고 있다. 창간호의 발행인은 안형균(安亨均)이고, 재일한국청년회중앙본부선전부의 편집으로 재일본 대한민국청년회중앙본부에서 발행되고 있다. 1970년대 초, 민단 산하의 청년조직으로 활동하던 재일한국청년동맹(약칭:한청 혹은 한청동)과 재일한국학생동맹(약칭:한학 혹은 한학동)에 대해 1972년 7월 7일 민단 제20회 중앙위원회는 두 조직을 민단 산하에서 제명 처분을 내린다. 이후에 청년회 활동은 공백기를 거쳐 1977년 2월 27일, 민단중앙회관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면서 탄생한 조직이 재일한국청년회이다. 정식 명칭은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로, 한국에 뿌리

5) 편집 겸 발행인은 박철민(朴鐵民)이다. 박철민은 1945년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나, 도에이(東映) 영화배우양성소를 졸업하고 요요기(代々木) 소극장 연극집단인 ‘변신(変身)’과 재일조선연극단, 금강산가극단을 거쳐, 1984년에 연극·영화기획집단 ‘마당 기획’을 설립했다. 그리고 1986년에 새누리문화정보센터를 설립하고, 1989년에 재일코리안을 중심으로 한 문화정보지로 창간한 것이 바로 『새누리』이다. 박철민은 이 외에도 2003년에 TV J-Korea를 설립하고, 재일코리안의 문화, 지식, 기업인, 시민운동단체나 해외 코리안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한일 바이링걸 연극과 영화에서 배우와 연출가로 활약하였다.

6) 거의 매호마다 일본에서 활약하는 인물을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재일뮤지션 조박(趙博), 재일 축구선수 출신의 감독 이국수(李國秀), 가수 사와 도모에(沢知恵), 프로레슬러 초슈리키(長州力), 작가 사기사와 메구무(鷺沢萌), 여성 풍수가 리노이에 유치쿠(李家幽竹), 라쿠고가 쇼후쿠테킨페(笑福亭銀瓶), 여성 레게가수 부심(PUSHIM), 작가 쓰카 고헤이(つかこうへい) 외에도 가수 강수지, 아이돌 그룹 SES 등 한국인의 이름도 보인다. 1990년대 재일한국인뿐 아니라 재일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지가 출간되기 시작한 가운데, 『안녕!』은 비교적 오랫동안 발간을 지속해 온 잡지라 할 수 있다. 홈 페이지(<https://www.seinenkai.org>)에서 소개하고 있는 재일한국청년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권익옹호운동, 문화서클, 한국어 강좌 실시, 모국방문 사업 등이다.

를 둔 18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에게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청년회 회원을 위한 정보지로 출발한 『안녕!』은 연2회 발행되고 있고, 재일의 생활에 관한 정보와 한국의 정치에서 유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8호(1994.07)부터는 회원정보지에서 ‘21세기를 향해 재일코리언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정보지’를 표방하면서 잡지 체제 또한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17호(1999.07)부터 ‘재일코리언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정보지’로 ‘21세기를 향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있고, 38호(2010.10)부터는 다시금 재일을 위한 정보지로 리뉴얼하면서 재미 있고 유익한 정보, 엔터테인먼트 정보까지도 소개하는 잡지로 변모하고 있다.

『나비아』는 ‘생활 속의 국제화’, ‘이문화 교류 매거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썩크네 트가 1989년 9월에 창간한 잡지이다. 잡지의 성격은 일본인, 재일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생활정보지로 분류할 수 있다. 매호 다양한 테마로 특집을 다루고 있고, 영화, 서가, 이벤트 가이드 등의 정보를 싣고 있다. 창간호의 표지는 “꿈을 꿔다. 하늘을 날고 있는 이상한 꿈. 그것은 푸르고 투명한 유리구슬 같았다.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왠지 사랑스러워 전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조금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다. 꿈으로 본 지구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 신선했다. 거기에는 지구본 여기저기에 그어져 있는 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초록으로 둘러싸인 광대한 땅에, 노란 아이가 동그마니 보였다. 검은 아이도, 하얀 아이도 있었다.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고, 멀리 저편에 하얀 것을 머리에 얹은 산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모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시장이 있고, 광장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 아이들 세계가 있었다. 거기에는 분명한 삶의 영위가 있었다. 화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인간의 미래가 있었다”라는 문구로 장식하고 있다. 이 표지의 문구는 ‘교류LAND 지구호 여행으로’라는 창간 특집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 볼 수 있다. 2호(1989.12)는 ‘국제화의 전환점’, 3호(1990.03)는 ‘황금의 나라 지팡구는 어디에’, 4호(1990.06)는 ‘말과 이문화 발견’을 각각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재일 한국인뿐 아니라 다수의 일본인이 집필에 참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의 생활, 문화 정보지는 아니지만, 세대교체와 남북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귀화 조선인이 발행한 『우리이름』⁷⁾은 특기할만한 잡지라고 볼 수 있다. 본지는 1986년 2월부터 1994년 9월(35호)까지 발행된 <민족명을 되찾는 모임>의 회보이며(오사카, 사무처장 정양이, 회보는 3개월에 1회 발행), 일본 국적의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유일한

7) 본 회보에는 단순히 일본 국적의 재일조선인의 법적 투쟁 및 민족명을 되찾기까지의 기록뿐 아니라, 일본인 학자 및 변호사에 의한 학술적·법리적 투고 논문 및 집회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6년 8월에 발행된 3호에는 「민족명을 되찾는 교토 집회 안내, 박실 씨를 격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당시 아이치현립대학 교수)가 강연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조연자에게는 1969년부터 1991년까지 잡지 『조선인-오무라수용소를 폐지하기 위하여』를 편집/간행한 이누마 지로(飯沼二郎)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다.

잡지이다. 동 모임은 일본 국적의 재일조선인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85년 12월에 결성되었고, 일본 국적 재일조선인의 이름을 일본 국적법 10조(부득이 한 경우 통명 변경 가능)에 기초하여, 회원들의 이름을 민족명으로 바꾸기 위한 법적 투쟁의 기록을 담고 있다. 특히, 1994년의 중간호에 의하면, 1987년의 첫 재판부터 1993년까지 모든 회원의 이름이 일본 국적을 유지한 채 민족명으로 변경되었고(승률 100%), 이것은 한국 국적과 조선인 국적의 재일조선인에게 커다란 의미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민족과 국적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 사건이라고 전하고 있다.

회보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족명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 및 귀화의 문제점, 법정 진술서, 호적법 및 국적법 관련 자료 소개, 일본 국적 재일조선인과 혼혈의 교육 문제, 그리고 일본의 신문기사뿐 아니라 한국의 언론 보도를 소개하고 있고, 재일조선인 모임 <도깨비어린 이회>(오사카)와 공동 개최한 공부모임의 소개 등, 민족명을 되찾기까지의 회원들의 다양한 일상의 투쟁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20페이지 전후). 특히, 동 모임 및 회보는 단순히 일본인에게 일본 국적 재일조선인의 문제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일조선인 내부에 존재하는 귀화 재일조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멸시에 대한 투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에 발행된 재일조선인 관련 생활, 문화 정보지는 재일조선인의 세대 교체와 이에 따른 삶의 방식 및 공존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해 나갔으며, 뿐만 아니라 국제화와 이문화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지면을 구성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 국적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생활자의 시점에서 발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소설 『다리』와 경계의 월경 (불)가능성

다음으로 『코리아취직정보』의 서지적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본 잡지는 코리아 패밀리서클이 1986년 9월부터 오사카에서 발행한 취업 계간 잡지이며, 편집·발행인은 강성개, 현재 1993년 5월에 발행된 21호까지 확인된 상태이다. 21호 편집후기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인 학생 제군은 부디 자신의 ‘국적’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소극적인 의식을 가지지 말고, 정정당당히 취직 활동을 도전해 가길 바란다. 참고로, 본 잡지의 소재지는 목차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변경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992년 1월에 발행된 19호가 ‘104페이지’이었던 반면(1991년 5월에 발행된 17호는 ‘140페이지’), 21호는 ‘48페이지’로 대폭 축소되어 발간되었다.

그리고 잡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인광고 및 재일조선인·외국인이 근무하는 일본 기업 소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자격증 관련 직업 소개, 한일기업 교류 등과 같은 취업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기사가 소개되어 있다. 특히, 대학교의 취업 부서 및 취업 상담 일기, 그리고 재일조선인은 물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외국인의 취업관 등을 소개하면서,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취업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이후, 1988년 7월에 발행된 6호부터는 취업정보, 비즈니스, 역사와 문화, 소설과 논고, 여행, 인터뷰 등으로 대분류되어 발행).

또한, 잡지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호에서는 특집호를 기획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재일외국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창간호), 「재일코리안을 위한 해외여행 매뉴얼」(2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아티스트」(3호) 등을 기획하고 있고, 특집호가 없는 호에는 좌담회 및 대담(「신춘대담 최양일 vs 강진화」4호), 인터뷰 기사를 실고 있다.

창간호는 기대 이상의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들의 존재 가치도 클로즈업되고, 취직을 하는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국어를 취득해서 1급 국제인으로서 가슴을 펴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康)

코리안 기업은 코리아취업정보를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조은신용조합(朝銀)과 상은신용조합(商銀)의 구인광고가 나란히 실리는 것이 나의 꿈. 이를 위해 매월, 적금(?)도 들고 있습니다..... (桂)

1세, 2세, 젊은이, 어른. 살아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 “취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흡수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재일코리안을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의 나날. (ばん)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왜 민족 교육을 시켜 주지 않았어!」라고 감성적인 동생이 울부짖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본명으로 살아갈 테야!」라는 말을 남기고 방문을 거세게 탁. 방관했던 나, 나도 모르게 방긋. 부모님은 쓴웃음. (일)⁸⁾

그리고, 잡지의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위의 편집후기(2호)에서 「조은신용조합(朝銀)과 상은신용조합(商銀)의 구인광고가 나란히 실리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조총련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인과 민단 지지자가 대립하고, 따라서 동 취업 정보지 역시 모든 재일조

8) 編集部(1987.3)「編集後記」『コリア就職情報』2号, コリアファミリーサークル, p.130

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본 잡지에는 <한일기업 교류> 등의 기사 및 한일 고대문화 교류를 살펴보기 위한 한국의 지역 문화 탐방 등, 한국과의 다양한 교류가 소개되어 있다. 또한, 1988년 10월에 발행된 7호의 광고 지면에는 88서울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 호돌이 그림과 「고마워!! 호돌이군!」이라는 문구를 생각할 때(당시 북한은 서울올림픽에 불참 선언), 동 잡지의 정치적 입장이 한국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명’과의 관계에서 보면, 민족 교육을 받지 못한 남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본명으로 살아갈 테야!”라며 가족들 앞에서 선언하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쓴웃음’이 말해 주고 있듯이, 본 잡지는 동시대에 세대교체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귀화 및 통명 사용에 대한 움직임에 부정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코리아취직정보』에 연재된 재일조선인 작가 원수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1950년에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香川県) 겐즈지(善通寺)에서 태어난 재일조선인 3세이며, 생후 3개월 만에 가족과 함께 오사카 이카이노(猪飼野)로 이사한다. 이후, 오사카부립 공업전문학교에 입학하지만 전공에는 소홀했고, 문학과 영화 등의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된다. 대표작으로는 『이카이노이야기(猪飼野物語)』(1987년), 『AV오디세이(AV・オデッセイ)』(1997년), 『강남의 밤(江南の夜)』(2000년) 등이 있고, 재일조선인과 한국문학에 대한 평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기타무라 이와오(北村巖)는 원수일 작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작품 「뱀과 개구리」에서도 이카이노에서 강인하게 살아가는 가나야마 할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중략)이 선생님과 용운에서는 이미 1세나 2세들과 같은 <귀국>의 개념은 없고, 이카이노야말로 「조선시장으로 상징되는 제주도적인 풍물이 자아내는 심상 풍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카이노를 한발 떠나면 그곳은 이미 다른 아닌 이국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저자·원수일과 같은 재일 3세 역시, 1세와 2세와의 질적인 다름은 있다고 해도, 빼앗긴 <고향과 언어>의 역사적 숙명에 노출된 현실이 있다.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아이덴티티를 1세와 2세들의 「귀국운동이나 사상 사업」과 다른 방법으로, 3세들 역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⁹⁾

기타무라 이와오는 원수일의 작품은 오사카의 재일조선인 집단 거주 지역 이카이노에서 살아가는 아주머니들의 강인함을 리얼하게 그려내면서도, 세대론적인 측면에서는 1, 2세대와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명

9) 北村巖(2006)「解題 在日朝鮮人作家の宿命と屈折する<現在>」『<在日>文学全集 第12巻』勉誠出版, p.421

과 모국어 사용을 통한 취업 성공을 목표로 하는 잡지 『코리아취직정보』에 연재된 『다리』에서는 재일조선인의 민족적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리(橋)』(『코리아취직정보』1988년 1월 4호~1988년 10월 7호)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본 소설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4호 봄, 5호 여름, 6호 가을, 7호 겨울), 무대는 오사카이다. 대형 컴퓨터 회사의 대리점이면서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기도 하는 신흥회사인 ‘미래전기사’의 영업주임을 맡고 있는 이정문(李正文)은 입사 당시 우연히 만난 여성과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입사 내정을 받은 이정문은 회사로부터 영업을 위해 편의상 ‘아키타 마사후미(秋田正文)’라는 통명을 써줄 것을 권유받는다. 그리고 귀찮길, “나의 시집을 사 주지 않을래?”라며 B5 사이즈의 시집 《점(点)》을 파는 고사련(高沙連)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새빨간 운동복에 청바지,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한글 ‘자유’가 프린트).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지만, 사련은 본인은 ‘점’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하는 이정문과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며 점점 소원해지고, 결국에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동 소설은 사련이 남긴 “점이라는 존재는 고독을 대가로 한다”라는 말의 실체를 추적하면서, 사련의 세계를 공유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해독하려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련은 자신이 추구하는 ‘점’과 같은 존재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난간에 양 팔꿈치를 대고, 가느다란 손가락 끝으로 잡고 담배를 내뿜고 있는 사련의 윤기 있는 눈이 이쪽을 응시한다. 무심코 정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을 때지」라고 허세를 부렸다.

「역사는 나의 관심 밖」

「왜?」

「나는 점(点)이니까」

「점?」

「응, 시집의 제목에도 쓰고 있는 점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너 역시도 같은 존재야」

다 피운 담배를 일류미네이션이 흔들리는 요도가와에 던져버린 사련의 아름다운 이미가 쓴웃음에 일그러지는 것을 정문은 놓치지 않았다.¹⁰⁾

10) 元秀一(1988.1)『橋』『코리아就職情報』4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123

위의 소설 본문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사련의 시집 《점》과 본인 스스로를 ‘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는 관심 밖이라는 사련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점’은 ‘선’의 상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역사’를 가장 좋아한다는 이정문의 대답에 “역사는 나의 관심 밖”이라는 사련의 말을 생각하면, 소설 속의 ‘점’은 재일조선인의 역사성을 상대화하는 단어로 등장한다. 사련의 체육복 가슴 부분에 자수로 새겨진 ‘자유’라는 한글 글씨 역시, 이와 같은 ‘역사’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역사성을 부정하며 분절된 주체, 달리 말하자면 이른바 개별성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련의 존재 방식을 동시대의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인데, 예를 들면 소설 『다리』가 연재된 『코리아취직정보』 창간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목차들이 클로즈업된다.

본명으로 교단에 서는 것이 꿈입니다 — p.5

귀화했다고 해도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않은가 — p.20

절대로 귀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 p.35

무심결에, 안녕하세요라고 외쳤습니다 — p.86

일본인과 똑같이 살려고 생각하니 벽에 부딪히는 것이겠쥬 — p.103

문화도 좋고 역사도 좋다. 하지만 한국인의 피부 감촉을 전하고 싶다 — p.118¹¹⁾

위의 창간호 목차와 재일조선인의 역사성을 부정하면서 ‘점’의 존재 방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련을 서로 비교해 보면, ‘본명’으로 취업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기사와 절대로 ‘귀화’하지 말라는 기사, 그리고 신체화된 조선어를 자랑스러워하는 기사, 일본인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을 살아가려는 재일조선인의 가공성에서 오는 한계성을 지적하는 기사,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신체화된 피부 언어를 소개하는 각각의 기사들은 어쩌면 ‘점’의 존재 방식을 주장하는 사련의 주체성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련이 ‘점’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에 만족하고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예를 들면, 사련은 이정문에게 겐파치다리(源八橋) 근처에 있는 용왕궁(龍王宮)의 무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자(이정문의 어머니·경숙이 밀항 과정에서 숨을 거둔 장남·상문을 위해 제를 올리는 무당집),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 심각한 표정’으로 “어떤 의미에서 시의 언어와 샤먼의 계시는 같을지도 몰라”라고 반응한다. 이후, 사련은 용왕궁의 북소리와 제를 올리는 보살의 굿소리에 ‘원초적 소리’를 감지하고, 본인 내부의 변화에

11) (1986.9)「目次」『코리아就職情報』創刊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4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의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 허무인 채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허무를 구제할지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한 답은 준비해 줄 수 없어.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나는 자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수수께끼 같은 말에 정문은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되물을 수도 없는 정문은 말없이 수궁할 수밖에 없다.

「『점』은 허무해. 나는 『점』을 관찰시키려고 했어. 하지만, 그것은 마치 적막한 별들 사이에서 이탈하여 떨어지는 지구와 같이 너무나도 고독해. 정신이 건디질 못해.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통속적일지도 몰라. 고독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 침울한 모습으로 사련은 입을 다문다. 고개를 떨군 사련의 숨소리가 가슴 곁에 전해진다. (중략) 「정문, 오늘 밤 나를 안아줘」

땅속으로 파고들 듯한 울림의 신방의 무가와 중첩되는 사련의 말은 환청과도 같은 그 무언가처럼 정문에게는 느껴지지 않았다.¹²⁾

무당집과 보살, 그리고 굿소리가 조선의 샤먼 문화와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왕궁과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역사’를 부정하는 존재로서의 ‘점’을 추구하면서도, 존재론적 측면에서 본인 역시 자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기댈 곳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통속적일지도 몰라. 고독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라고 스스로의 불안정한 상태를 인정하는 사련의 고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점’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의지할 곳’(즉, ‘선’(역사성)에 대한 욕망)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든가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동 소설이 연재된 『코리아취직정보』와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용왕궁의 ‘원초적 소리’에 감응하는 사련의 모습은, 창간호의 ‘문화도 좋고 역사도 좋다. 하지만 한국인의 피부 감촉을 전하고 싶다’라는 기사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련의 ‘원초적 소리’와 ‘한국인의 피부 감촉’은 상호 교섭적으로 반응하면서, 본 잡지가 추구하는 본명과 모국어 사용을 통한 취업 성공이라는 문맥 속에서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소설의 후반부에서 사련은 결국 ‘선’(역사성)의 존재에 안주하지 못하고 ‘고독’을 담보로 ‘점’(개별성)의 존재 방식을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12) 元秀一(1988.5)『橋』『코리아就職情報』5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71

4. 1980년대의 ‘본명’과 취업 담론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상과 같이 ‘선’(역사성)의 삶에 안주하지 못하고 ‘고독’을 담보로 ‘점’(개별성)을 선택하는 사련의 존재 방식은, ‘아키타 마사후미’라고 하는 일본 이름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이정문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정문과 사련의 만남을 단순히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연애소설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련의 ‘점’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면 연애라고 하는 남녀의 공유 불가능성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정문의 본명 취업과 통명 취업의 공유 불가능성이 초점화된다.

만날 때마다 사련은 멀어져 갔다. 그리고 미도스지(御堂筋) 거리의 별거송이가 된 가로수가 북풍에 날려 뿔고 있던 11월 말 무렵, 사련은 홀연히 모습을 감추었다. (중략)결국 정문은 사련의 세계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전기사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 「리·정문(李正文)」이라는 이름조차 「아키타 마사후미(秋田正文)」라는 영업명으로 바뀌어 생활하고 있는 지금, 공유하는 것이 없다고 정문은 생각된다. 뭐야 이거, 허무하잖아. (중략)생각해 보면, 사련은 연인들에게만 통하는 의미가 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무언가의 상징이었고, 또한 비유이며 시였다. 시란 새삼 놀라움을 느낀다. 그건 그렇고, 사련은 어디로 간 것일까. 무엇 하나 단서를 남기지 않은 채…….13)

이정문이 영업 주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미래전기사(未来電気社)’라는 회사는 대형 컴퓨터 제조 회사의 대리점이면서 동시에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신흥 회사인데, 이곳의 사장은 이정문의 부모님과 고향이 같은 제주도 출신이다. 따라서, 이정문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력서의 성명란에 이정문이라는 본명을 기입해서 제출을 했고, 결과적으로 무사히 내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며칠 뒤에 회사 총무과장으로부터 호출이 왔고, 영업을 해야 하는 직무상의 이유 등으로 조선식 이름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을 테니, “아키타현의 아키타와 마사후미는 당연히 정문의 일본 음독”이라며 즉석에서 ‘아키타 마사후미(秋田正文)’라고 하는 통명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이정문에게 통명을 권유하는 총무과장 역시 조선인이며, 성은 이정문과 같은 ‘이(李)’이지만 ‘오카다(岡田)’라는 영업명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호출을 받고 찾아간 회사에서 영업직의 특성상 통명이 편하다고 하는 권유와 그 자리에서 통명을 지어주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정문은 어이가 없었지만 승낙을 하게 되고, 사련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 생활을 했고, 또 나름대

13) 元秀一(1988.10)『橋』『코리아就職情報』7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91

로의 영업 능력 및 실적이 인정되어 영업주임으로 승진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정문은 사련과의 공유 불가능성을 느낀 이후에, 왜 갑자기 통명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뭐야 이거, 허무하잖아”라고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일까. 본명과 모국어 사용을 통한 취업 성공을 목표로 하는 잡지 『코리아취직정보』의 입장에서 보면, 본명이 아닌 통명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 이정문이 통명과 본명 사이에서 고민하는 스토리 전개는 본 잡지의 취지와 부합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3세·4세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1980년대의 동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주인공 이정문은 만약 본명으로 취직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회의 없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코리아취직정보』의 창간호에는 취업 정보지의 성격과 맞게 취업을 준비하는 재일조선인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본명과 통명, 그리고 모국어 가능 여부와 취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재일동포 2~3세의 대부분이 우리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에서는 「말할 수 있다」=24명, 「조금 말할 수 있다」=40명으로 50%를 넘었다. 또한, 일본 기업에 취업할 경우, 「본명」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4명으로 압도적. 여기에도 점점 잊혀져 가는 민족혼을 한탄하며, 동화 경향을 저지할 수 없다고 하는 재일동포 사회의 일반적인 견해와 상반된 응답이 돌아왔다. 젊은 동포 세대의 잠재적인 민족애를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본명 취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모르겠다고 답한 27명 학생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다. 어쨌든, 대다수의 학생은 가업을 잊지 않고, 개인의 힘으로 타인에게 없는 “힘”을 키우겠다고 하는 의향이 강하다. 취업 후에도 「스펙셜리스트를 목표로 한다」=82명의 응답은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을 밀어짚을 수 있는 능력, 달리 말하자면 민족이나 출생을 근거로 해서 압박하는 일본사회의 여러 사회적 장애와 행정상의 제약 등과 같은 부조리를 누구나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실력을 키워서 개척해 나간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귀화·동화 등과 같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는 조금도 감지되지 않는다. 「지인 중에 일본 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있다」=96명과 같이, 국적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소재가 되어 취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 결과가 말해 주고 있다.¹⁴⁾

위의 「학생 앙케트」(한국적·조선적 학생 122명 대상, 대학생 105명, 고등학생 17명)에 의하면, 모국어를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본명 취업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대답이 ‘31.5%’이고, 모국어 가능자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본명 취업이 ‘압도적’(74명, 60%)으로 좋다고 대답

14) 編集部(1986.9)「学生アンケート」、「日本企業に就職する場合は本名で、60%」『코리아就職情報』創刊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15

하고 있다. 특히, 세대교체와 이에 따른 동화 경향에 대해서는 ‘재일동포 사회의 일반적인 견해와 상반된 응답이 돌아왔다’고 전하면서, 젊은 동포 세대들의 ‘귀화·동화 등과 같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는 조금도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재일조선인에 대한 취업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74명’, 개선되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25명’, 실력이 있으면 문제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23명’, 무응답자는 ‘3명’이다.

그런데, 위의 양케트에서 주의할 점은 본 조사 대상자 및 지역이 재일조선인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시된 결과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작가 양석일은 재일조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커뮤니티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일찍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하는 우월감은 일본인의 잠재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재일동포의 밀집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작은 블록마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일본인의 차별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에 가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배타적인 지방의 마을과 도시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은 노골적인 차별의 대상이 된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일본 사회에서 포섭하고 있는 제도로서의 차별, 인권규약이나 난민조약, 민족 학교에 대한 교육 기회의 균등과 지문날인문제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도, 오사카나 도쿄와 같은 대도시 속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재일동포의 수는 전체의 30퍼센트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남은 약 50만 명의 재일조선인은 이름을 숨기고,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다. 「김희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희로의 어머니가 “언젠가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우리 희로가 해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무겁다. 차별에 의해 야기된 내면의 테러는 극한에까지 달해 있었던 것이다.¹⁵⁾

재일조선인 밀집 주거 지역인 오사카에서 간행된 『코리아취직정보』에서는 본명 취업을 적극 장려 및 모국어 가능자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지만, 위 인용문에서 양석일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사카와 도쿄의 재일조선인 커뮤니티는 전체의 30퍼센트 미만이다. 그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 커뮤니티 이외의 지방에서 생활하는 재일조선인의 차별은 심각하다는 점에서, 오사카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양석일이 지적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의 지역성을 경유하면서 다시 한 번 소설에 주목해 보면, 주인공 이정문이 느끼는 통명 취업에 대한 회의와 고독감은 소설이 연재된 『코리아취직정보』가 추구하고 있는 본명 취업과 반드시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주목해 보면, 이정문은 겐파치다리 위에서 보트를 타고 다리 밑을

15) 梁石日(2006)「金嬉老事件とは何だったのかー「われ生きたり」金嬉老」『未来への記憶』アートン, p.132

통과하는 사련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다리 난간을 뛰어넘을 듯 몸을 내밀지만, 사련은 “고독을 살아가고 싶으니까”, 즉 재일조선인의 역사성이 아닌 개별성을 선택하겠다고 하며 또 다시 이정문을 밀어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다리 밑을 통과하는 사련이 탄 배를 쫓아 반대편 난간으로 도약하듯 뛰어가면서 소설은 끝이 난다. 일찍이, 사련은 “다리라는 단어는 나의 감성을 뒤흔들어. 다리를 넘으면, 그곳에는 전혀 다른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의 이미지가 넘쳐날 것 같아”라고 했던 말을 생각하면, ‘다리’(경계)라는 위치와 그 장소로부터의 탈출 시도는 재일조선인 3세로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구축에 대한 열망 및 주체 구축의 유동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소설의 방향성은 ‘역사’를 대변하는 ‘선’이 아닌 ‘점’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이정문의 포지션이 아직 ‘다리’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사실, 그리고 본 소설의 제목이 『다리』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본 소설은 개별성을 강조하는 ‘점’의 위치에 방점을 찍으면서 열린 결말로 끝이 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리’는 이쪽과 저편을 나누는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쪽과 저편을 연결해 주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소설 『다리』는 『코리아취직정보』의 본명과 이를 통한 취업을 목표로 하는 본 잡지의 취지와 반드시 부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어쩌면, 이러한 잡지의 취지와는 반대로, 통명 취업에 회의와 고독감을 느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본명 취업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경계로서의 이정문의 위치는, 다름 아닌 조선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용왕궁의 굿소리에 끌리면서도 그 역사성을 부정했던 사련의 분열된 상태와 오버랩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계’에 주목하면, 예를 들면 『코리아취직정보』의 창간호에 실린 연극 배우 이예선과 세무사 이연자의 대답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당시, 국적 조항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세무사를 택한 이연자는 초등학교 문집에 ‘나의 조국은 두 개로 분단되어 있어서 불합리하다’라고 쓸 정도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반면, 일본의 소극장을 대표하는 가라쥬로(唐十郎)가 이끄는 상황극장(狀況劇場)의 간판 여배우이자 아내이기도 한 이예선은 안보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스스로가 ‘비정치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대비되고 있다. 특히, 이예선은 본지의 편집부로부터 “이예선 씨는 10년 전에 귀화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본인의 귀화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다.

나는 극히 비정치적인 인간입니다만, 일전에 김지하와 함께 연극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쪽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서웠습니다. 아이를 남겨두고 나만 강제송환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귀화를 하면 (그런 면에서)조금은 말이죠 (중략)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안 해도 한국인인데 말이죠¹⁶⁾

귀화를 둘러싼 이예선의 발언은 방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강제송환에 방점을 찍으면 그녀의 귀화는 역사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귀화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안 해도 한국인인데 말이죠”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개별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발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전자에 주목하면 역사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사련의 존재 방식과 일치하고, 후자에 주목하면 채용 이력서를 낼 때 당당히 본명을 기입할 정도로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선’의 인생을 살아온 이정문이 통명 회사 생활을 통해서 오는 회의감과 오버랩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예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본명이 아니라 예명이며, 지금까지 총 다섯 개의 이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명은 이초자(李初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호시아마 하츠코(星山初子),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시 이초자로 돌아왔고, 여배우가 되면서 이예선(李禮仙), 이후 가라 류로와 결혼 후에는 오즈루 하츠코(大鶴初子), 그리고 지금은 이름은 같지만 한자가 다른 이예선(李麗仙)으로 활동하고 있다.¹⁷⁾ 특히, 그녀가 이예선이라는 예명으로 연극 배우 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호시아마 하츠코로 참여를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로부터 조선식 본명이 ‘멋지다’라는 말을 기억해 내면서 조선식 예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어머니의 이름 ‘吉仙’을 힌트로 개명).

또한, 1974년의 인터뷰에서는 지금까지 ‘대단히 충격적인 의미’에서의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없지만, 일본과 한국 양쪽 모두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¹⁸⁾ 즉, 이상과 같은 이예선의 이름과 관련된 발언들에 주목해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분열된 주체를 살아가는 이예선을 단지 조선식 이름만으로 귀납법적으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예선이라고 하는 조선식 이름은 연극이라고 하는 특수 공간에서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적인 육체로 소비되는 이름으로 작동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작가 양석일이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의 일본화에 따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듯이, 조선식 이름 하나만으로 『코리아취직정보』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통명 취업에 회의와 고독감을 느끼면

16) 李礼仙·李年子(1986.9)「ぶらり散歩」『코리아就職情報』創刊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96

17) 李麗仙(1999)『五つの名前』集英社, p.9

18) 李礼仙(1974.10)「インタビュー李礼仙」『別冊新評』新評社, p.81

서도 그렇다고 해서 본명 취업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경계로서의 이정문의 위치는, 세대교체와 정주 지향의 동시대적 상황 속에서 역사성을 계승하면서도 개별성을 찾아가려고 했던 젊은 세대의 불안정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한 소설로 평가할 수 있다.

5. 나오며

1980년대에 발행된 재일조선인 잡지 미디어는 세대교체 및 북한송환사업 종결 등의 동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듯이, 재일 3세를 주축으로 뉴커머 층이 일본사회에 등장하면서, 의식주나 취직, 결혼 등의 생활정보 또는 아이덴티티나 모국어 문화의 계승을 주요 테마로 하는 미디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달리 말하자면, 1980년대는 일본인과의 공존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정주 지향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잡지가 발행되었다. 특히, 주제별로 살펴보면 귀화와 행정차별, 본명과 통명, 재일조선인 아동의 민족 교육, 그리고 본명을 통한 취업 등, 각 잡지에서는 ‘제3의 논쟁’과 관련된 글들을 게재하면서 재일조선인의 세대교체와 이에 따른 삶의 방식 및 공존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해 나갔다. 본고에서 고찰한 『코리아취직정보』 역시, 이와 같은 동시대적 상황을 공유하면서 독자들에게 소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동시대적 상황 속에서 발행된 본명과 모국어 사용을 통한 취업 성공을 목표로 하는 잡지 『코리아취직정보』와 그곳에 연재된 원수일의 『다리』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3세의 본명 취업과 통명 취업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이정문과 고사련의 만남을 단순히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연애소설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고사련의 ‘점’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면 연애라고 하는 남녀의 공유 불가능성 뿐 아니라 이정문의 본명 취업과 통명 취업의 공유 불가능성이 초점화된다. 특히, 소설의 방향성은 ‘역사’를 대변하는 ‘선’이 아닌 ‘점’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이정문의 포지션이 아직 ‘다리’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사실, 그리고 본 소설의 제목이 『다리』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본 소설은 개별성을 강조하는 ‘점’의 위치에 방점을 찍으면서 열린 결말로 끝이 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리’는 이쪽과 저편을 나누는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쪽과 저편을 연결해 주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소설 『다리』는 『코리아취직정보』의 본명과 이를 통한 취업을 목표로 하는 본 잡지의 취지와 반드시 부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어쨌면, 이러한 잡지의 취지와는 반대로, 통명 취업에 회의와 고독감을 느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본명 취업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경계로서의 이정문의

위치는, 다름 아닌 조선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용왕궁의 굿소리에 끌리면서도 그 역사성을 부정했던 고사련의 분열된 상태와 오버랩된다.

또한, 작가 양석일이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의 일반화에 따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듯이, 통명 취업과 그에 따른 회의와 고독감 하나만으로 소설 『다리』를 『코리아취직정보』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주인공 이정문은 통명 취업에 회의와 고독감을 느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본명 취업을 선택하지도 못한 채 경계에 머물러 있고, 특히 아이덴티티의 방향성은 개별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와 같은 이정문의 존재 방식은 단순히 재일조선인의 역사성과 본명 취업을 강조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세대교체와 정주 지향의 동시대적 상황 속에서 역사성을 계승하면서도 개별성을 찾아가려고 했던 젊은 세대의 불안정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한 소설로 평가할 수 있다.

【參考文獻】

- (1986.2)「結成の呼かけ」『우라이름』創刊号, 民族名をとりもどす会, p.1
 徐海錫(2010.9)「編集後記」『ヒューマンレポート』2010 特別号
 (1987.11)「編集後記」『ウリ生活』創刊号, 在日同胞の生活を考える会, p.186
 (1988.6)「編集後記」『MILE』創刊号, KYCC, p.36
 (1989.9)「編集後記」『NABIYA』創刊号, シンクネット, p.126
 (1989.11)「編集後記」『セヌリ』創刊号, セヌリ文化情報センター出版局, p.78
 (1989.12)「編集後記」『안녕!』創刊号, 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中央本部, p.91
 (1987.3)「編集後記」『코리아就職情報』2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130
 編集部(1986.9)「学生アンケート、「日本企業に就職する場合は本名で」60%」『코리아就職情報』創刊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15
 元秀一(1988.1)「橋」『코리아就職情報』4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123
 _____(1988.5)「橋」『코리아就職情報』5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71
 _____(1988.7)「橋」『코리아就職情報』7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91
 李礼仙・李年子(1986.9)「ぶらり散歩」『코리아就職情報』創刊号, 코리아ファミリーサークル, p.96
 李麗仙(1999)『五つの名前』集英社, p.9
 李礼仙(1974.10)「インタビュー李礼仙」『別冊新評』新評社, p.81
 北村巖(2006)「解題 在日朝鮮人作家の宿命と屈折する〈現在〉」『＜在日＞文学全集 第12巻』勉誠出版, p.421
 梁石日(2006)「金嬉老事件とは何だったのかー「われ生きたり」金嬉老」『未来への記憶』アトーン, p.132

논문투고일 : 2020년 10월 06일
 심사개시일 : 2020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20년 11월 06일
 2차 수정일 : 2020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1월 17일

<要旨>**1980년대 재일조선인 취업 잡지 연구**

- 『코리아취직정보』와 원수일 『다리』를 중심으로 -

임상민

본고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 발행된 재일조선인 취업 정보지 『코리아취직정보』의 서지적 정보 및 역할을 살펴보고, 본지에 연재된 재일조선인 작가 원수일의 『다리』의 동시대성을 탐색했다. 특히, ‘제3의 길’ 논쟁과 1984년의 북한송환사업 종결이 상징적이듯이, 세대교체와 일본 정주 지향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재일조선인 3세의 본명 취업과 통명 취업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이정문과 고사련의 만남을 단순히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연애소설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련의 ‘점’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면 연애라고 하는 남녀의 공유 불가능성뿐 아니라 이정문의 본명 취업과 통명 취업의 공유 불가능성이 초점화된다. 특히, 소설의 방향성은 ‘역사’를 대변하는 ‘선’이 아닌 ‘점’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이정문의 위치가 아직 ‘다리’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사실, 그리고 본 소설의 제목이 『다리』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본 소설은 개별성을 강조하는 ‘점’의 위치에 방점을 찍으면서 열린 결말로 끝이 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작가 양석일이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의 일반화에 따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듯이, 통명 취업과 그에 따른 회의와 고독감 하나만으로 소설 『다리』를 『코리아취직정보』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주인공 이정문은 통명 취업에 회의와 고독감을 느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본명 취업을 선택하지도 못한 채 경계에 머물러 있고, 특히 아이덴티티의 방향성은 개별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와 같은 이정문의 존재 방식은 단순히 재일조선인의 역사성과 본명 취업을 강조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세대교체와 일본 정주 지향의 동시대적 상황 속에서 역사성을 계승하면서도 개별성을 찾아가려고 했던 젊은 세대의 불안정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한 소설로 평가할 수 있다.

Study on Korean-Japanese Employment Magazine in the 1980s

- Focusing on 『Korea Job Search』 and 『Bridge』 by Won Su il -

Lim, Sang-Min

This paper traces the contemporary relationship betwee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and the serial novel “Dari” published at the time of generation change from 1, 2 to 3 and 4 years before and after 1980. Let’s look at how the dynamics of coexistence and coexistence work in a dynamic network of networks surrounding Korea and Japan.

As a result, can I say that the serial novel “The Bridge” is consistent with the real-time employment pursu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that Lee Jeong-moon, who feels skepticism and loneliness about working for civilization? If you pay attention to the final scene of the novel, Lee Jung-moon stumbled across the bridge over the Genpachi Bridge, and at the moment, Lee Jung-moon stretched out as if he was jumping over the bridge railing, but refused saying “I want to live solitude” The novel ends with a leap forward and a leap to the other railing. Earlier, Saryun said, “The word shook shakes my emotions. If you think that you are overlooking the image of a poem even if you think that there is a completely different space there when you cross the bridge, then the location of <Bridge> (boundary) and the attempt to escape from that place will be Japan It can be interpreted as a desire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identity as Sero and the fluidity of constructing a subject.

In particular, the direction of the novel is that it is pursuing <dot> rather than <line>, which represents ‘history’, and the fact that Lee Jung-moon’s position is still on the ‘bridge’, and the title of this novel is ‘Dari’ The novel ends with an open ending while focusing on the location of <dot> in the point of. ‘Dari’ has the meaning of the boundary between this and the other side, but from the other side, it is also a meeting place connecting the other side with the other side. Is not necessarily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is magazine.